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어렵지만 더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지만 급하게 바뀌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것이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이다. 그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다. 그것이 “OURS”이다.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축복 네가지의 이니셜이 “OURS”이다. 실제 영어의 뜻도 “우리 것”이니 그렇게 잡으면 된다

1. 오직(Only)이다.

하버드 대학원 교수의 “Different”라는 책에서 현대 사회에서 리더로 살려면 “넘버원이 아닌 온리원”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을 위해 창조적 자기 파괴를 하고, 고정 관념을 깨고, 차별화 등의 강조를 했다.

1) 우리에게 오직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이 왜 꼭 필요한 것인가?

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오직으로 잡으라는 것이다. 그것은 근본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찾아내고, 거기서 모든 답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② 예수님이 마태13에서 밭에서 발견한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물고기 비유를 하면서 설명한 것이 그것이다. 가장 소중한 것을 찾으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 나머지는 다 팔아도 되고, 다 버려도 안 아깝다는 것이다.

2)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오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보내신 그리스도이다.

① 그 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다. 제사장, 왕, 선지자라는 그리스도의 세가지 권세로 끝없이 계속되는 인간의 타락과 그 배후에 숨은 영적 문제와 거기서 따라오는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다(롬8:1-2) 노아 시대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도 있다(마24:37-39).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이다.

② 그 분이 우리의 영원한 해답이 된 것이다(요19:30). 지금보다도 더 큰 문제와 재앙이 와도 두려워할 이유 없다. 우리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 바라본다면 우리가 누릴 축복은 따로 있다. 그 분만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오직이다. 본문의 요셉이 뭐가 달랐던 것인가? 요셉이야말로 넘버원이 아닌 온리원으로 산 것이다. 형제들에게 죽을 뻔 하기도 했고, 노예로 팔려오기까지 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구원하셨고, 그 속에서 함께 하신 것이다.

3) 어떻게 이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 우리의 오직이 될 수 있을까?

①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그 분으로 오직이 되도록 집중해보라(말씀으로 편집, 설계하고, 디자인해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말씀만 찾아서 내 인생을 편집해보라. 내 인생이 다시 발견될 것이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나올 것이다. 그것이 설계이다. 내가 뭘 준비하고 갖추어야 하는지가 나올 것이다. 그것이 디자인이다.

②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는 이 오직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

요셉을 비롯해서 렘넬트 일곱 명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로움, 고통의 자리에서 이 오직을 체험한 것이다. 사람과 세상은 나를 버릴 수 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신다(롬8:30-39, 빌1:6)

③ 숨은 영적 문제를 당하는 사람들은 이 오직을 체험하고 증인으로 세워질 절대적 기회이다.

악몽에 가위 눌리고, 귀신 소리를 듣고, 영적 문제로 질병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다가 포기하고 무당이 되는 사람들도 많다.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고 그 분을 바라볼 때 사단은 벌벌 떨고 도망간다. 운명 같이 400년 노예로 짓눌려 살던 이스라엘이 유월절 피 바는 날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출12:27-29).

2. 유일성(Uniqueness)의 축복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바라볼 때 내 인생(학업, 일, 사업, 목회)을 그 분이 다스리는 것이다(하나님의 나라)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할까? 오직, 유일성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뭘 해도 상관없다.

1)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유일성의 축복을 붙잡고 가라.

요셉이 노예로 살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일하는 보디밭의 집과 밭의 식물들까지 복을 받았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감옥에 가서도 유일성의 축복을 누렸고, 왕궁에 가서도 유일성의 축복을 누렸다.

감옥에서도 요셉의 말만 답이 되었고(창39:22), 왕도 요셉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었다(창41:40).

2) 전도 속에서도 유일성의 능력과 응답을 누리라.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만나는 사람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설명하면서 답을 주어보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은 그 오직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답을 얻고, 치유를 받고, 인생이 바뀐다(유일성 전도)

3) 우리의 작은 선교도 유일성의 축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옆의 다민족부터 나의 선교로 알고 시작해보라.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면 된다.

우리 교회의 다민족 성도들과 사역자들은 전부 그렇게 세워진 것이다.

3. 재창조(Recreation)의 역사이다.

재창조는 구원의 역사이다.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의미한다.

1) 오직과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며 사니까 사람들이 내게 오는 것이다. 그것이 전도이다(사60:1-5)

그들이 그리스도의 답을 듣고, 내 간증을 들으면서 살아난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다.

2) 더 중요한 것은 오직과 유일성을 붙잡은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현장의 흐름이 바뀐다.

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밭의 집, 감옥, 왕궁, 애굽이란 나라의 흐름까지 바뀐다. 그가 참된 써밋이다.

칠년의 흉년에는 쌀을 비축해놓았고, 다시 칠년의 흉년에는 쌀을 팔면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더 번성했다.

② 불신자 집안에, 종교 생활하는 집안에 한 사람을 통해 빛이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처럼 무시도 하고, 핍박도 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감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결국 요셉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자기가 사는 시대와 다음 시대까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 요셉으로 인해 형들의 후대들도 살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열두지파가 일어나고, 그리스도도 오신 것이다.

결론-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언약을 잡고 누리는 사람이 영적 써밋이다(창41:38). 우리 한 사람이 이 증인으로 서면 그가 “개인 시스템”이다. 이들이 같이 모일 때 세상 살리는 “현장 시스템”, “교회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고통의 시대에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신다. “OURS”가 정말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복한다.